

## 익산 남부권·황등 노인종합복지관 '가을 나들이'



익산시 남부권과 황등노인종합복지관은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자원봉사자들과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함께 따뜻한 추억을 담고 올 수 있는 가을 나들이를 진행했다.

지난 6일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은 자원봉사자들과 어르신 30여명이 익산 시티투어버스와 연계해 미륵사지와 교도소 세트장 등 우리 지역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가을 나들이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가까운 곳이라도 평소에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해 알게 됐고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간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함께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어르신들과 함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 늘 묵묵히 애써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부권과 황등노인종합복지관은 경로식당과 이미용 봉사 등에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해 주고 있으며, 황등노인종합복지관은 오는 26일 가을 나들이를 진행할 예정이다./익산=임규창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3-10-10 13면

<http://sjbnews.com/794445>





익산시 남부권과 황등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6월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가을 나들이를 진행했다.

## 어르신들 가을 나들이 떠나 추억 한아름

익산 남부권·황등노인종합복지관, 미륵사지 등 지역 명소 관광

익산시 남부권과 황등노인종합복지관은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자원봉사자들과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함께 따뜻한 추억을 담고 올 수 있는 가을 나들이를 진행했다.

지난 6일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은 자원봉사자들과 어르신 30여 명이 익산 시티투어버스와 연계해 미륵사지와 교도소 세트장 등 지역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가을 나들이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가까운 곳이라도 평소엔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해 알게 됐다”며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간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함께한 자원봉사자는 “어르신들과 함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늘 묵묵히 애써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부권과 황등노인종합복지관은 경로식당과 어미용 봉사 등에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황등노인종합복지관은 오는 26일 가을 나들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중호 기자 event00@naver.com

도내 퍼지는 행복바이라스



익산 왕궁면 주민자치위

저소득층에 고구마 전달

익산시 왕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6일 왕궁면 소재지의 밤에서 고구마를 수확해 이웃 나눔을 실천했다.

이는 지난 5월 면내 저소득층 및 홀로사는 어르신을 돕기 위해 심은 고구마로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장 작업을 거쳐 저소득층에게 총 40상자를 전달했다【사진】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고구마 나눔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류형규 주민자치위원장은 “올해에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 같다”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남희 면장은 “추수철에 바쁜 와중에도 소외된 계층을 위해 나눔 봉사에 참여해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위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면민 여러분께 잘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중호 기자 event00@naver.com

# 익산 남부권·황등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가을 나들이'

✎ 김익길 기자 | ⓒ 승인 2023.10.07 13:55

## -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특별한 하루, 따뜻한 추억을 담다 -

익산시 남부권과 황등노인종합복지관은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자원봉사자들과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함께 가을 나들이를 진행했다.

6일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은 자원봉사자들과 어르신 30여명이, 익산 시티투어버스와 연계해 미륵사지와 교도소 세트장 등 우리 지역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가을 나들이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가까운 곳이라도 평소에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해 알게 됐고,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간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함께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어르신들과 함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늘 묵묵히 애써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부권과 황등노인종합복지관은 경로식당과 이미용 봉사 등에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해 주고 있으며, 황등노인종합복지관은 오는 26일 가을 나들이를 진행할 예정이다./익산=김익길기자



김익길 기자 kimtop1210@hanmail.net